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참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98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음력 10월 12일)

환경부 "이해당사자 반대하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없어"

7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
전문가 의견 엇갈려… 주민들은 생업 잃을까 우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주민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과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우도·추자도·임업인 등 국립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도 참석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153㎢ 면적인 국립공원을 해양도립공원과 오름, 곶자왈까지 포함, 총 610㎢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날 '제주국립공원 구상 및 추진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립공원 체계는 자연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또 여러가지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면서 미래지향적인 체계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기반을 구축, 자연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추진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국립공원 추진의 문제점'으로 발표에 나선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개별적 관리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라면서 "특히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제주국립공원은 또 하나의 개별관리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토지 보상비는 ㎡당 2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곶자왈 국유화, 임산물 생산 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계획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우원 과장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만약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향후 주민설명회 혹은 공청회를 계속 개최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상공회의소 정문에서는 우도 주민들이 제주국립공원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토론회장에서는 추자도 주민과 임업인 등이 "생업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송은범기자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가 진행되는 조천~월정 해안도로 구간에 대회를 알리는 배너기가 게양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강희만기자

감귤국제마라톤 제주가을 물들인다

오는 10일 조천~월정 해안도로 코스서 진행
체험행사·특전 풍성…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

달림이들의 축제인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가 제주의 늦가을을 수놓는다. 달림이 4000여명이 함께 할 이번 대회는 이 계절만큼이나 풍성한 '오감만족 축제'로 펼쳐진다.

>>관련기사 7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회는 오는 10일 제주시 조천운동장~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라일보사와 (사)제주감귤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육상연맹이 주관, 제주도가 후원한다.

주최 측은 대회 접근성과 코스 난이도 조절을 위해 지난해 6년만에 제주시로 장소를 옮긴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코스에서 대회를 이어간다. 코스는 조천운동장에서 시작해 조천읍 오션베스트빌(5㎞)~함덕해수욕장(대촌 회미락, 10㎞)~구좌읍 일주동로 토끼네BnB(하프)~김녕입구삼거리~김녕교차로~월정밭담길(풀 반환점)을 왕복하는 구간이다.

대회 당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달리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10일 제주는 최저기온이 11℃,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마라톤과 함께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오전 9시 개막식을 전후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대회 참가자를 위한 특전도 다채롭다. 마스터스 부문 풀코스 남여 1위와 클럽대항전 참가자 중 최고기록자에겐 일본 아오모리현 애플마라톤 대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특별상, 가족화합상 등도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에선 오전 7시20분,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선 오전 6시50분에 첫 셔틀버스가 출발한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행사장과 출발지를 잇는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제주서 국제 미래자동차 기술 심포지엄

KAIST, 오는 11일 제주서 개최
관련 분야 연구자 100여명 참석

국제전기차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논의의 장도 펼쳐진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오는 1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에서 '국제 미래자동차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기술의 미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은 한국·미국·홍콩·싱가포르 4개국의 초청 연사와 관련 분야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기조연설을 맡은 후이 펑(Huei Peng) 미국 미시간대 앤아버 중앙캠퍼스 교수는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의 동향 및 발전 전망'을 주제로 미래의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려는 연구의 동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게 된다. 또 미래자동차 기술을 다루는 세션에서는 에드워드 청(Edward Chung) 홍콩 이공대 교수가 '연결사회에서의 교통 관리'를 주제로 차량-도로 인프라 간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효율 혁신 방안을 소개하게 된다. 이어 장기태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교수는 '제주, 친환경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산실'을 주제로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세션에서는 모한 트리베디(Mohan Trivedi)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교수와 금동석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교수·마르셀로 앙(Marcelo Ang)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윤국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과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에 관해 소개한다. 조상윤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구 국도 일주도로변 가로등 설치 이달 완료

지난 2017년부터 연차적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을 이달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은 일주도로변 취락지구 중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과 지역주민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가로등 설치 요청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은 국비 28억원을 투입해 구좌읍(동복·하도), 남원읍(남원), 성산읍(고성·신천), 표선면(하천·세화), 대정읍(상모·인성), 애월읍(애월) 지역에 가로등 362주(총 연장 7500m)를 신설했다.

애월읍(고내) 및 한경면(판포) 지역 84주(총 연장 1650m)는 이달 중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50 100 감귤산업 50년 미래감귤 50년
제주감귤 100년의 가치
제주감귤박람회
2019. 11. 8 (금) ~ 12 (화) 10:00~17:00
※11. 8 ~ 10일 (3일간) 10:00 ~ 20:00 야간개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00년을 느끼다 (만남의 광장, 직거래장)
함께 성장하다 (제주감귤홍보관, 제주농업관, 컨퍼런스)
빛을 밝히다 (감귤 숲길, 귤림추색 돌담길 걷기)
가치를 나누다 (산업전시관, 농기자재전시장, 우수감귤품평회)
하나가 되다 (감귤푸드존, 예술황감제, 금물과원 퍼포먼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중자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kotra 제주관광공사 AKEI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농협중앙회 (사)제주감귤연합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